



남부소방, 효덕지하차도 침수 대비 훈련

광주광역시 남부소방이 관내 효덕지하차도에서 여름철 침수 대비 유관기관 합동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이번 훈련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폭우 등으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를 대비해 유관기관 초기대응 역량 강화 및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추진됐다. 소방 및 유관기관 등 차량 9대와 인원 30여 명이 참여해 행암지하차도 내 침수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지하차도 내 주요 시설 확인 및 수동작동법 습득 △유관기관 배수펌프 작동 방법 및 배수 방법 지도 △침수 상황을 가정한 차량부서 위치 및 인명구조 등의 현장활동 방안 강구 △수중펌프 사용을 포함한 수방장비 활용 훈련 등이다.

이문희 남부소방 119재난대응단장은 “관계기관과 비상 연락 체계 상시 유지 및 현장 대응 정보 공유를 통해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준 기자



광주 사랑의열매, 흑서기 나눔캠페인 전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광주 사랑의열매)는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계층과 복지 사각지대를 돕기 위한 ‘우리 광주 희망여름 착!착! 나눔캠페인’을 전개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사진)

캠페인은 오는 11일부터 7월15일까지 총 35일간 광주광역시와 5개구가 함께 진행한다. 희망여름은 울여름 시민들의 나눔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하자라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지난해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에 이어 3년째 진행되는 연중나눔 캠페인이다. 광주광역시와 5개구 전체가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한 집중 모금캠페인에 돌입한다.

특히 광주 사랑의열매는 이번 캠페인과 더불어 총 5억7000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투입해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 장애인 가정, 복지사각지대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기관 단체에 흑서기를 위한 현금 및 현물을 지원한다. 정승우 기자



광주 의용소방대, 전국소방체전 간식물품 지원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0일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소방체전 경기장에 의용소방대가 간식 물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사진)

전국소방체전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선수단 등 약 2500여명이 참여해 축구, 야구, 농구, 족구,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7개 종목으로 진행된

다. 이번 지원한 물품은 선수들이 경기 중 섭취할 수 있도록 준비한 바나나 19박스로, 축구·야구 등 각 경기장별로 배부됐다.

최정식 119대응과장은 “의용소방대에서 준비한 정성이 체전 참가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



전남 사랑의열매, 한전KDN ‘나눔명문기업’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전남 사랑의열매)는 한전KDN이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나눔명문기업’은 1억원 이상 기부했거나 3년 이내 기부를 약정한 기업이 참여하는 고객 기부 프로그램이다.

가입식에는 노동일 전남 사랑의열매 회장, 김동국 사무처장, 박상형 한전KDN 사장, 정수욱 기획관리부장, 김민영 ESG 경영처장, 홍의덕 상생협력부장과 관계자 직원이 참여했다.

한전KDN은 이번 ‘나눔명문기업’ 가입을 통해 그동안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나눔 문화 확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며 ESG 경영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앞으로도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따뜻한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 한전KDN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



전남도, 민관합동 조선업 안전문화 캠페인

전라남도는 지난 10일 영산강 하구둑 삼거리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민관 합동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에 참석해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를 확산할 것을 다짐했다. (사진)

캠페인에는 이재희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 김재을 HD현대 삼호 사장, 왕삼동 대한조선 대표이사, 유인숙 전남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장, 김창수 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장, 대불산단 입주기업 근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영산강 하구둑 삼거리 교차로에서 안전 결의문 낭독, 안전구호 제창, 안전캠페인 피켓 활동 등을 통해 출근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 자율안전관리 실천 분위기 조성이나섰다.

또한 작업현장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관 간 상호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 광산구, 치매 노인 실종 예방 모의훈련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치매 노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치매 노인 실종 예방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훈련은 무양공원 일대에서 △실종 예방과 대응 지침에 대한 사전 교육 △신고 접수 △현장 출동 △실종자 발견 및 보호자 인계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광산구 치매안심센터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광주 광산경찰, 지역 주민, 관계 기관이 참여해 치매 노인 실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 공동체 기반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는 취지다.

또한 배회 역활자에게 부착된 인식표를 찾아 신고하는 주민 참여형 캠페인 ‘인식표를 찾아라!’와 지문 등록, 배회 인식표 등 실종 예방 홍보 부스 등을 운영했다. 김상철 기자

은봉희 남구의원, ‘소상공인 지원’ 심사 통과



은봉희(사진) 광주 남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물가·경기침체 속 어려운 경영환경에 내몰린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계획 세부사항, 실태조사, 재난 피해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항 신설을 통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제 안정과 성장을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세부 지원계획 규정 신설,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이 포함된다.

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1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이정준 기자

로제 ‘아파트’ 빌보드 싱글 33주 진입...최장 기록 타이

블랙핑크 로제(사진)의 글로벌 히트곡 ‘아파트’(APT.)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K팝 최장 진입 타이 기록을 세웠다.

10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아파트’는 전주보다 2위 하락한 24위로 33주 연속 ‘핫 100’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지민이 솔로 2집 타이틀곡 ‘후’(Who)로 세운 33주 진입과 같은 기록이다.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핫 100’에 처음 오른 뒤 꾸준한 인기를 얻으며 K팝 여성 가수의 ‘핫 100’ 최장기 진입 기록을

매주 경신했다.

이 곡이 수록된 로제의 1집 ‘로지’(rosie)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190위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BTS 지민·정국 전역 “군대 쉽지 않아...기다려줘 감사”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지민(박지민)과 정국(전정국)이 1년 6개월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지민과 정국은 11일 오전 경기 연천군 제5보병사단 포병여단에서 전역한 뒤, 인근 연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기념행사서 팬들에게 거수경례로 인사했다.

이날 오전 8시께 두 사람이 차량에서 내려 취재진과 팬들이 모여 있는 행사장으로 걸어오자 모여있던 500여명의 팬이 환호와 함성을 터트렸다.

지민과 정국은 소속사 관계자들이 건넨 꽃다발을 두 손 가득 안고 밝은 미소로 팬들을 맞이했다.

지민은 “코로나19부터 군대까지 꽤 긴 시간이었는데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저희가 그려 나가던 그림을 앞으로 계속 그려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 더 좋은 모습을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대가 처음이었는데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곳이었다”며 “지나가다가 군인분들을 보시면 따뜻한 말이라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국은 “카메라 앞이 오랜만이라 화장도 안 해서 민망한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남은 후임과 조금 일찍 전역한 동기들이 저희랑 같이 생활하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소감을 전했다.

두 사람이 복무했던 부대는 연천군 신서면에 있으며, 편도 좁은 길로 이어져 있어 안전상의 이유로 공식 행사는



지민



정국

위병소가 아닌 공설운동장으로 장소가 변경됐다.

이날 공설운동장으로 향하는 군내 곳곳에는 지민과 정국을 전역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줄지어 걸렸다.

운동장 주변에는 ‘보랏빛 귀한 다시 비상할 시간’, ‘이제부터 정국의 시간’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대형 풍선이 설치돼 눈길을 끌었다.

국내외 팬들은 이른 아침부터 부대 인근과 행사장 주변에 모여 손뼉팔과 응원봉을 들고 두 사람의 전역을 축하했다.

브라질에서 온 팬은 “정국을 너무 사랑해 어제 한국에 왔고, 오늘 5시부터 이곳에서 기다렸다”며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멀리서라도 정국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한 일본 팬은 “어제 RM과 뷔를 보러 강원도에 갔다가 오늘은 연천에 왔다”며 “몸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전역해줘서 너무 기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군에 따르면 지민과 정국은 2023년 12월 육군 현역으로 동방 입대에 5사단 포병여단에서 각각 포수와 조리병(취사병)으로 복무했다. 연합뉴스